

올해 예산 162억...‘문화가 있는 날’ 판 커진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열고 있다. 시행 첫째 약 20개였던 광주지역 참여 기관은 현재 45개로 늘어나는 등 4년차를 맞이하며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47억5000만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9.8% 증액된 예산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문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기관 참여율을 40%(2016)에서 45%(2017)로 향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광주 양림동에서 열린 ‘1930 양림살롱’ 등 ‘지역거점특화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한다. 지난해 30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56억원으로 늘려 40개 프로그램(지난해 24개)을 운영한다. ‘1930양림살롱’은 올해도 사업에 선정되며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온다.

학력, 이력, 수상경력 등을 전혀 보지 않고 오디션이나 동영상 심사만으로 청년공연팀을 선발해 호응을 얻었던 ‘청춘마이크 사업’(28억원)은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 주관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또 문화예술회관 ‘작은 음악회 지원사업’에는 15억원을 투입하는 등 3개 대표 사업에 총 99억원이 책정됐다.

최근 출판계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독서캠페인 등 각종 기획 사업도 시작한다. 가곡, 오페라, 낭독극, 음악극 등 소외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사업’(11억원)도 공모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기획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각종 공모 일정을 1~2월로 앞당긴다. 현재 권역별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권은 24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열린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시민들이 감상하고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 제공〉

예산 10% 증액...기관 참여율 40%→45%로 향상

‘1930 양림살롱’ 지속...‘청춘 마이크 사업’ 등 확대

내일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 등 올 첫 행사

25일 펼쳐지는 올해 첫 행사는 음악 공연·영화관 입장료 할인·체육시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유·스퀘어는 오후 5시30분부터 유·스토리(실내광장)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Cream Trio’(크림 트리오)가 출연한다. 드럼 김민호, 피아노 오세주, 베이스 전사무엘, 객원 보컬 김은영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이다. ‘인생의 회전목마’, ‘바람이 분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Cream’ 등을 재즈 버전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유·스퀘어는 공연과 함께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기획공연 초대권을 증정하는 명함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62-360-8431.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 31일까지 열리는 국립광주박물관은 오후 7~8시 ‘특별전 기념 설명회 : 신안해저문화재’를 진행한다.

개관 이래 최다 수량(1만여점)을 선보이는 전시로, 담당 학예사에게 직접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안선의 실체와

14세기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별도 신청 없이 2층 특별전시장에서 현장 참여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국립광주과학관은 상설전시관 입장료(성인 3000원·어린이 2000원)를 50%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있는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성인 1만5000원·청소년 1만2000원·어린이 1만원)도 입장료 50% 할인한다. 가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입장 마감은 오후 7시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광양 부영국제빙상장 전국 13개 스케이트장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지역 영화관에서는 오후 5~9시 5000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카프카 문학 집대성...‘카프카 전집’ 20년만에 완간

20세기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독일 문학의 자존심으로 일컫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1883~1924)의 문학을 집대성한 전집이 출간됐다.

솔 출판사와 한국카프카학회는 최근 제6권 ‘카프카의 일기’와 제8권 ‘밀레나에게 쓴 편지’ 발간을 끝으로 10권 분량의 ‘카프카 전집’을 완간했다. 지난 1997년 4월 단편을 모은 제1권 ‘변신’을 출간한 지 꼬박 20년 만이다.

전집은 기존의 단편집과 ‘소설’, ‘성’, ‘실종자’ 등 장편소설에서부터 잡언, 미완성 작품집 그리고 편지와 엽서 등 개인적 저작까지를 망라한다.

이번에 출간된 ‘카프카의 일기’는 여행일기와 서류 등을 기초로 했으며 죽마고우였던 막스 브로트와 책 출간을 논의하는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전



집에는 카프카가 일기장에 그린 스케치도 그대로 수록됐다.

카프카는 1921년 마지막 연인이었던 밀레나 예젠스카에게 이들 일기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19년 지인들이 모인 카페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밀레나에게 쓴 편지’는 1920~1923년 카프카가 남긴 편지들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생각이 커지는 지혜동시 ‘마법사는 바로 나!’

김미라 동시인 펴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회귀하는 어종이다.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모습은 장관이다. 태어난 곳에 도착한 연어는 마침내 알을 낳고 죽는다. 거슬러 오르는 것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명작동화를 동시로 재구성해 아이들에게 ‘시’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 발간됐다. 2009년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미라 동시인이 펴낸 ‘마법사는 바로 나!’는 생각이 커지는 지혜동시다.

책에는 익숙한 동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수록돼 있다. 안도현 시인의 동화 ‘연어’를 동시로 형상화한 ‘희망을 찾아’, ‘안네의 일기’를 소재로 한 ‘사람이 사람에게’, ‘홍당무’를 이미지화한 ‘온도가 있어요’ 등이 대표 작품이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희망을 가져요’, ‘제2부 용기를 가



저요’, ‘제3부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제4부 상상을 높여요’, ‘제5부 지혜를 쌓아요’ 등 각각의 장에는 주제에 부합한 동시

와 함께 시인이 동화를 읽고 난 후의 짝막한 감상이 실려 있다.

동시인인 윤산현 아동문학평론가는 “동화의 주제 의식을 탐색하여 명쾌한 하나의 물줄기로 가다를 추진 뒤 간략히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며 “연구하는 시적 태도와 타고난 성실함, 번뜩이는 창의성이 빛어낸 아름다운 동시들이 동심 고갱까지 준비를 마치고 차분히 손님을 기다린다”고 평한다.

한편 영광 출신 김미라 동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아동문예문학상을 수상했고 동시집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여행’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28일 설날특별 공연 ‘새해 새나라’

진도에 자리한 국립남도국악원이 28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설날특별 공연 ‘새해 새나라’를 연다.

이번 공연은 소고춤을 비롯해 기악합주로 듣는 ‘남도굿거리’,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새해맞이 ‘지신매귀놀이’(사진), ‘판굿’ 등으로 구성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가훈쓰기, 소원나무, 민속놀이체험, 설 기념품 증정 등이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가훈

쓰기는 공연 전 사전 예약과 신청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서예가들의 작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공연관람 후 로비에서는 정유년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주머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전석 초대이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jindo.guga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540-40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화백 유족들

‘미인도 진품’ 불복... 검찰에 항고

25년간 위작 시비가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1924~2015)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데 대해 유족 측이 불복, 항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미인도 위작 사건에 대해 내일(24일) 서울중앙지법

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지난달 19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